아침세평

거짓말의 색깔

김요수

광주연합기술지주 대표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나는 안 한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돋보이려고 옷으로 꾸미고, 번지르르한 말로 허울 씌우잖아! 고운 마음 더 챙기고, 좋은 버릇 더 익히면 좋으련만.

누구나 허세 부리고 뻥 깐다. 나는 안 그런다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지 마라! 더 가지려고 안 할 짓도 하고, 발버둥치며 잘 난 체 하면서! 더 북돋아주고, 더 나누면 멋진데.

하얀 거짓말이 있다. 칭찬할 때 주로 한다. 너의 솜씨는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히면 죽는다. '너의 솜씨가 나를 죽일 만큼'이란 뜻이다.

사람들은 칭찬하는 쪽으로 발전하니까 거짓말 보탠 칭찬은 좋다. 불꽃같은 도전과 열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남의 마음에 쏙 들려고 아첨하지는 마시라. 그대의 알랑방귀 때문에 진짜 실력자가 곁을 떠나고, 소리 한마디 못 내며 죽어가는 사람도 생기니까.

칭찬과 응원, 위로와 격려에는 과장이나 거짓을 섞어 힘을 주시라. 사랑을 얻을 때 거짓말하는 것처럼!

파란 거짓말도 있다. 부풀리는 거짓말이다. 자랑하거나 흉볼 때 주로 한다. 내가 골백번 말해서 해냈고, 너는 아무 것도 못 했잖아. '골'은 만의 우리말이고, 백의 우리말은 '온'이다.

그러니까 백만 번 말했다는 뜻인데 그만큼 말했으면 입가에 허연 침이 다닥다닥 엉긴다. 좀 더러운 거짓말이다.

자기를 스스럼없이 빛내려는 거짓말이고, 남을 교묘하게 짓밟는 거짓말이다.

파란 거짓말로 출세하는 사회는 이웃의 행복이 멀고, 나라의 발전과 밝은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공동체의 상식은 뒤틀리고 도덕은 무너진다. 기껏 개인의 욕망실현과 가문의 영광만 즐비하다.

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을 더 자주 쓴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남이 한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한다.

'내가' 그것을 찾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했다고? 말로써 나를 우뚝 세우지만 남을 철저히 죽인다. 내가 더 가지려는 뻔뻔한 거짓말이다.

자신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빨간 거짓말을 퍼뜨려 스스로 거짓에 물들고, 주위를 거짓에 젖어들게 한다. 젖어들면 거짓말이 거짓인 줄 모르고, 없는 놈끼리 싸우게 만든다. 싸움은 나쁜 놈과 더러운 놈들과 해야 하는데.

검은 거짓말도 있다. 재산을 빼앗고 영혼을 빼앗는 시커먼 거짓말이다. 매우 악독해서 망치가 돼 사정없이 두들겨 팬다.

검은 거짓말은 그것이 전부인양 그것이 진리인양 해, 듣는 사람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다만 견딘다.

어느 순간 세뇌 당하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죽는다. 나만 우월하다는 검은거짓말은 다른 세상을 모두 거짓으로 여긴다.

언론은 거짓말하지 않을까? 진실만 말하고, 정론만 쓴다는 언론이 있긴 하다.

'팩트 체크'란 이름으로 언론 기사의 거짓을 파헤치는 언론도 있다. 보도에 가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이다.

언론은 허세와 뻥이 없을까? 보도자료만 베끼는 기자도 있고, 의심이 가면 취재하는 기자도 있긴 있다. 사실을 확인하면 광고랑 출세랑 바꿔먹는 기자가 있고, 확인되면 보도하는 기자도 있다.

그럼 정치는 어떨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많고, 말 속에 음흉함을 담는 정치인도 많다. 긍정을 앞세우는 정치인은 드물다. 정치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이다.

씁쓸하다.

언론과 정치는 배 고플 때 밥 주고, 추울 때 담요 주는 일이 아닐까? 목마를 때 물을 주고, 힘들 때 거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하는데 지식이나 팔아먹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고 갈등을 풀어야 하는데 경력만 내세워 제 배만 채워서야, 원.

언론이 거짓과 허울의 황태자로 군림하면 쓰레기가 보물로 둔갑한다. 정치가 허세와 뻥의 황제 자리를 차지하면 서민이 죽어나간다. 언론을 보면 울적하던 마음이 뿌듯해지고, 정치를 보면 서럽던 나날에 웃음이 피어나야 한다.

선거를 앞뒀다. 가짜 정보와 거짓 후보를 아예 빼고, 진심의 정치를 보자.

기고

겨울의 낭만 속에서 다시 바라본 안전의 의미

박충훈

광주 남부소방서장

겨울이 성큼 다가오며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이 찾아왔다. 겨울은 차갑고 매서운 계절이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낭만이 숨어 있다.

따뜻한 음료 한 잔이나 포근한 난로의 온기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를 찾게 해 준다.

이렇게 겨울은 차갑고 매섭기도 하지만 바쁘게 흘러가던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돌볼 여유를 되찾게 해주는 계절이다.

이처럼 겨울은 편안함과 여유를 선물해 주는 소중한 계절이지만, 동시에 다른 계절에 비해 특히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실제로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12~2월)은 4계절 가운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절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겨울철 화재로 인한 연평균 인명피해는 725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30.07%를 차지해 사계절 중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 수 역시 연평균 105명(사망률 34.23%)으로 계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최근 5년간의 통계는 겨울철이 단순히 화재가 '많은 계절'을 넘어,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고위험 시기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전기난로·전기장판·열선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난방용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2020년 8170건에서 2023년 8871건으로 꾸준히 상승해 4년 사이 701건(약 8.6%)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기기를 장시간 켜둔 채 외출하거나, 난로 주변에 가연물을 가까이 두는 행동처럼 사소해 보이는 부주의가 화재발생의 요인으로 보인다.

겨울철 화재는 대개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보도된 사례만 살펴봐도 그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10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도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10명이 긴급 대피하고, 이 중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

2024년 1월 전북 남원시에서는 전기장판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난방기기가 원인이 된 화재는 순간의 방심 속에서 일어나며,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특히 야간·새벽 시간처럼 대응이 늦어지기 쉬운 시간대에는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점검과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열기기를 사용할 때는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먼저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눌려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여러 전열기기를 하나의 멀티탭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은 과부하로 인한 발화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난로·히터 주변과 전기장판 위에는 커튼·이불·의류·종이 등 가연물을 최소 1~2미터 이상 떨어뜨려 두고, 전기장판은 내부 열선이 꺾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평평하게 펴서 사용하며 두꺼운 이불로 덮어쓰지 않아야 한다.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취침 중에는 전열기기 전원을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안전은 특별한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실천으로 완성된다.

이번 겨울만큼은 난방기기 사용습관을 돌아보고, 가족과 직장동료, 이웃과 함께 점검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사고를 막고, 우리의 겨울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계절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계절이지만 가정마다 온기와 행복이 가득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실천하는 작은 안전이 우리 모두의 겨울을 더욱 빛나게 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따뜻하고 평안한 겨울을 보내길 기원한다.

취재수첩

KIA, 현명한 겨울나기를

송하종

문화체육부 기자

KIA타이거즈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핵심 선수들이 줄이탈하면서 전력에 큰 구멍이 생긴 것.

시작은 박찬호였다. 두산은 지난 18일 박찬호와 4년 총액 80억원(계약금 50억원·연봉 총 28억원·인센티브 2억원)에 계약했다.

지난 2014년 2차 5라운드 50순위로 KIA에 입단한 박찬호는 2019년부터 주전으로 뛰었다. 그의 1군 통산 타격 성적은 1088경기 3579타수 951안타 23홈런 353타점 타율 0.266 OPS(출루율+장타율) 0.660. 올해에는 134경기에서 148안타 5홈런 42타점 타율 0.287을 기록했다.

박찬호의 타격 성적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수비에서는 확실히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수비상이 신설된 지난 2023년부터 2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골든글러브까지 거머쥐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욱이 그는 통산 187개의 도루에 성공하는 등 주루 능력도 갖췄다.

그런 그가 떠나면서 KIA 유격수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마땅한 대체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포수 한승택도 kt위즈로 이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백업 자원으로 꾸준히 안방을 지켜온 자원이다. 내년에는 주전 김태군이 37세가 되는 만큼, 백업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 경험이 적은 한준수와 주효상이 그 임무를 대신해야 하기에 한승택의 빈자리가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여기에 팀 타선의 중심을 잡아줬던 최형우까지 2년 총액 26억원에 삼성으로 떠났다.

올 시즌 최형우는 133경기에서 144안타 24홈런 86타점 타율 0.307 24홈런 OPS(출루율+장타율) 0.928의 맹활약을 펼쳤다. 또 KBO리그 최초 4400루타, 1700타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령 400홈런, 2500안타 등 각종 통산 기록도 갈아치웠다.

특히 올 시즌 박찬호, 오선우, 위즈덤과 함께 유일하게 규정타석을 소화하기도 했다. 박찬호와 위즈덤이 빠진 상태에서 최형우마저 이탈하면 남는 건 올해 첫 풀타임을 소화한 오선우 뿐이다.

이미 KIA는 주축선수였던 김도영, 김선빈, 나성범 등 야수진의 연이은 부상 악재로 고비를 겪었다. 숱한 부상을 겪은 나성범과 김선빈의 전 경기 출전은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규정 타석을 소화한 베테랑들이 모두 빠진다면 리빌딩 흐름을 피할 수 없다. 팀 타선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KIA가 내년 시즌 '윈나우'를 노리려면 최소한 남은 내부 FA 양현종과 조상우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미 생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도 구상해야 할 것이다. KIA가 현명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법을 찾길 바란다.

사설

12·3 비상계엄 1년…진상규명·단죄만이 답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혼돈'에 빠져 있다.

불법 계엄 선포로 인해 헌정사상 두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통령선거, 정권 교체 등 숨가쁜 정치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치 구조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날의 상처는 곳곳에 남아 있다.

국민의 손으로 헌법질서를 회복하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지만 '불법계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계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단 세력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다. 아직까지도 불법계엄에 대한 공식사과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마저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양극화된 정치세력은 빈번히 충돌하며 극한 대립하는 등 정치적 긴장 상태가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타협'이니 용서니 이런 수사어구를 동원하며 봉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안될 말이다.

우리는 해방후 일제시대의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해 그 후손들이 버젓이 큰소리 치며 살고 있는 현실을 '타산지석'삼아야 한다.

'예전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발표한 12·3 비상계엄 1년 특별성명은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의 상처를 씻어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키워드로 '정의로운 통합'을 제시했는데 이는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한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함으로써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원천봉쇄해야 온전한 국민통합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계엄의 진상규명을 통한 내란 청산과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한 엄정한 처벌만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때다.

전남 지자체 버스 무료운행 열 올리는데…

곡성군이 내년 1월1일부터 군내버스를 무료 운행한다고 한다. 모든 군민과 관광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한해 평균 이용객이 45만명 정도인 '1000원 버스'를 운행하며 그동안 버스업체에 보조금 40억원을 보전해줬는데 이번 무료운행으로 최소 5억원이상을 추가 보전해주게 됐다.

군내버스 무료운행은 이미 완도군에서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전남도 최초이자 전국 두번째다.

현재 8개 업체 35대의 버스가 6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도입 전 하루 평균 2300명이던 승객이 이후 3000명선으로 약 30% 증가했다고 한다.

이어 진도군도 지난해 7월부터 농어촌버스 18대로 35개 노선을 전면 무료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하루 평균 34%정도 늘었다. 특히 군민은 물론, 관광객이 자주 이용해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주민들간 소통도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 영암군도 지난해 9월부터 71개 노선 35대 군내 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운행을 시작했는데 이는 경북 청송·봉화, 완도·진도에 이어 다섯 번째 사례다.

이들이 앞다퉈 무료버스 운행에 적극 나서는 것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실제 효과를 낳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도입하고 있고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료 운행에 따른 요금 차액을 전남도가 지난해까지는 절반을 부담해줬는데 올해부터는 30%만 보전해주기로 해 운행 지자체들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도내 일부 군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 악화가 반복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 가능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약자 보호, 주민 복지와 생활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이들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10	논설실	370-7200
경제부	370-7020	임원실	370-7000
사회부	370-7030	총무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업국	370-7090
편집부	370-7082	광고국	370-7070
사진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